

# 集合行動과 커뮤니케이션

李 孝 成

## 目 次

- |                |                     |
|----------------|---------------------|
| I. 序 言         | Ⅲ. 集合行動과 커뮤니케이션     |
| Ⅱ. 集合行動 一般     | 1. 集合行動과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
| 1. 集合行動의 定義    | 2. 集合行動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
| 2. 集合行動의 過程    | 3. 集合行動과 流言         |
| 3. 集合行動에 관한 理論 | Ⅳ. 結 語              |

## I. 序 言

人間은 自身の 社會生活에서의 諸般行爲를 저마다 자기 나름의 어떤 觀點에서 본다. 그래서 經濟學者는 利益을 追求하는 經濟行爲로, 社會學者는 地位와 役割을 遂行하는 社會學的 行爲로, 政治學者는 權力을 追求하는 政治行爲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 觀點이 무엇이든 人間의 社會行爲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왜냐면 社會生活이란 사람들 사이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相互作用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可能하며 커뮤니케이션 그 自體가 곧 相互作用이랄 수 있기 때문이다.

Davison과 Yu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領域은 너무도 넓어서 그것을 전체로 보자면 社會生活과 文化의 모든 局面을 포함하게 되어 단지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하거나 實體를 갖고 있다는 專門家的 唯我論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즉 人間의 個性도 커뮤니케이션의 產物이고 人間의 文化와 모든 社會組織들도 커뮤니케이션의 產物인 것이다.<sup>1)</sup>

同窓會를 例로 들어보자. 동창회를 組織하기 위해서 동창중의 누군가가 다른 동창들에게 동창회 조직의 뜻과 모임의 日時와 場所를 알려야 할 것이다. 직접 만나서 말하건 電話로 傳하건 또는 地上에 公表하건, 동창회 조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뒤에야 동창회가 結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동창회가 結成되고 난 뒤에 그 동창회를 維持하고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동창회원간에 커뮤니케이션網이 가장 중요한 要素로 등장한다. 그래서 會員들의 連絡處를 파악하고 連絡體系를 세워 놓는다. 결국 어떤 組織體란 그 組織成員間

1) W.P. Davison & Frederic T.C. Yu, "An Attempt to Structure the Field," in Davison & Yu (eds.), *Mass Communication Research: Major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Inc., 1974), p. 2.

의 커뮤니케이션 體系라고 말할 수도 있다.

Daniel Lerner도 커뮤니케이션은 組織體의 神經組織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相互作用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情報의 交換이 있어야 되며, 共有된 情報라는 意味에서 커뮤니케이션은 社會行爲의 조직 메카니즘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체를 形成한다는 命題는 社會組織體에 있어서 크진 작진, 公式的이건 非公式的이건, 上下序列的이건 平等한 關係건, 모든 類型의 集合行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2)</sup>

또한 Killian과 Turner도 分業, 規範的 秩序,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조직의 相互依存的이고 相互作用的인 特성이라고 하여 사회 조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지적했다.<sup>3)</sup>

人間의 社會行動의 모든 類型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役割은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組織的인 行動이건 非組織的인 行動이건 人間의 社會行動研究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研究는 요체가 될 것이다. 가령 一時的이고 自然發生的이며 非組織的인 群衆行動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人間의 社會行動중에서 非組織的인 集團行動 즉 集合行動을 研究하는 모든 學者들이 커뮤니케이션의 重要性을 지적하고 있다. 集合行動을 社會學的인 側面에서 體系의으로 研究한 Smelser는 集合行動이라는 episode의 결정적 중심적인 特徵은 社會行爲의 어떤 要素의 再構成을 豫見하는 信念이라고 말하고, 어떤 行動이 集合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信念을 疏通하고 사람들을 行爲에로 유도하는 어떤 樣式이 필요하다고 했다.<sup>4)</sup>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또는 상호작용의 單一한 形式이 集合行動의 결정적인 특징은 아니며 그러한 信念은 제스처, 記號, 對面的 流言, 매스 미디어 또는 이데올로기의 形成에 의해 疏通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對話, 통제되지 않은 循環的 反應, 또는 一方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物理的, 時間的 환경에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의 형태는 集合行動이라는 episode의 時期, 內容 및 範圍 등을 決定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本考는 集合行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내지는 役割을 檢討해 보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및 流言의 세가지 次元에서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論及하기 앞서 集合行動 自體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集合行動에 대한 몇가지 事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Daniel Lerner, "Mass Communication and The Nation State," in *ibid.*, p. 83.

3) R.H. Turner & L.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57), p. 38.

4) Neil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p. 11.

## II. 集合行動 一般

### 1. 集合行動의 定義

群衆行動, 革命 또는 社會運動(social movements)과 같은 非組織的이고 自然發生的인 一種의 集團行動을 集合行動(collective behavior)이라고 한다. 이와 同義語로서 mass phenomena,<sup>5)</sup> mass behavior,<sup>6)</sup> collective dynamics<sup>7)</sup> 등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collective behavior라는 말로 一般化되었다. 集合行動이라는 말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Robert E. Park<sup>8)</sup>에 의해서 널리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 용어가 그대로 H. Blumer,<sup>9)</sup> R.H. Turner와 L.M. Killian,<sup>10)</sup> Neil J. Smelser<sup>11)</sup> 및 S. Milgram과 H. Toch<sup>12)</sup>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 물론 이 말도 아주 적절한 用語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이 말은 너무 一般的인 用語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함께 행동하는 둘 이상의 個人들 즉 集合體(collectivity)의 行動은 모두 集合行動이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集合行動은 모든 集團生活을 포괄하고 만다. 따라서 집단행동이란 말의 의미를 적당히 制限할 필요가 있다.

우선 集合行動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집합행동에 대한 定義와 그들이 들고 있는 집합행동의 特性이나 對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Blumer는 “집합행동은 새로운 社會秩序가 탄생하는 方法의 연구에 관계하는 것”이라고 하고 collective excitement, social unrest, riots, manias, crazes, fads, mass alarms, mass hysteria, public revolts, protest movements, rebellions, primitive religious behavior, reform movements 및 revolutionary movements 등을 지적했다.<sup>13)</sup>

또한 Turner와 Killian은 “집합행동은 集合體의 행동연구이며, 집합체란 사회의 既存 規範

- 5) R.W. Brown, “Mass Phenomena,” in G.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1954), pp. 833-876.
- 6) R. König, “Masse,” in R. König(ed.), *Soziologie* (Frankfurt & Hamburg: Fischer, 1958), pp. 166-172 및 E. Lederer, *The State of the Masses* (New York: Norton, 1940).
- 7) K. Lang & G.E. Lang, *Collective Dynamics* (New York: Crowell, 1961).
- 8) R.E. Park, “Human Nature and Collect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2, pp. 733-741.
- 9) H. Blumer, “Collective Behavior,” in A.M. Lee(ed.), *New Outline of The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 Noble, 1939), pp. 165-220.
- 10) Turner & Killian, *op. cit.*
- 11) Smelser, *op. cit.*
- 12) S. Milgram & H. Toch, “Collective Behavior: Crowds and Social Movements,”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Vol. 4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69), pp. 507-610.
- 13) Blumer의 집합행동에 관한 定義는 Lang & Lang, “Collective Dynamics: Process and Form,” in Rose (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p. 352에서, 집합행동의 예에 관해서는 Milgram & Toch, *op. cit.*, p. 507에서 再引用.

이나 組織에 배치되거나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새로운 규범과 조직의 自然的인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그러한 類의 集團을 가리킨다고” 했다.<sup>14)</sup> 그는 群衆, mass behavior, 公衆의 行動, 社會運動과 같은 것이 집합행동의 主題가 됨을 지적했다. Turner와 Killian의 집합행동에 대한 定義는 Blumer의 그것과 大同小異한데 이들은 모두 集合行動에 의하여 超來되는 결과 즉 새로운 사회규범이나 질서의 발달에 注目하고 있다.

한편 Lang과 Lang은 “집합행동이란 문제제리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相互作用의 결과와 類型에 중점을 둔 社會學의 한 分野”로 정의 하고 集團行動에 있어서 相互作用의 특징으로서 自然性(spontaneity), 可變性(volatility), 一時性(transitoriness)이 비교적 큼을 지적했다.<sup>15)</sup> 여기서 自然性이라 함은 집합행동에의 參與者가 일차적으로 순간적인 情調(mood)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완전히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非因習의인 생각을 表現하고 非因習의인 行動에 참여하는 바꾸어 말하면 既存의 基準에서 逸脫하는 보다 큰 主觀的인 自由나 心理的 強要를 體驗하게 됨을 말하는 것 뿐이다. 高度로 흥분된 中等의 一員일지라도 絶對的인 意味에서 不可抗力的인 衝動에 의해 지배되는 않는다. 可變性이란 강한 感情, 不節制한 意見, 또는 現實에 대한 명백한 誤解 등을 가끔 주고 받고 그에 의해서 행동하는 폭발적인 힘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條件 밑에서의 反應의 不安定性을 말하기도 한다. 一時性이란 것은 相互作用이 비교적 一時的인 형태로 끝나버리는 것을 말한다. 집합행동에서 행동의 熱情的인 상태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Smelser는 “집합행동이란 社會行爲를 再定義하는 어떤 信念에 근거한 動員”이라고 말하고 집합행동의 類型으로서 ① 恐怖的인 反應(the panic response) : 히스테리칼한 信念에 근거한 집합적 탈출, ② 熱狂的인 反應(the craze response) : 적극적인 願望實現의 信念에 근거한 행동에의 動員, ③ 敵對的인 暴發(the hostile outburst) : 적대적 신념 아래서의 행동에의 동원, ④ 社會改革運動과 같은 規範志向的인 運動(the norm-oriented movement) : 一般화된 信念이라는 이름으로 規範을 復元하고, 보호하고, 수정하고, 창조하려는 試圖, ⑤ 정치적 또는 종교적 혁명, 民族主義運動과 같은 價値志向的인 運動(the value-oriented movement) : 일반화된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복원하고, 보호하고, 수정하고, 창조하려는 집합적 試圖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16)</sup> 그는 集合行動이란 (a) 非組織的(uninstitutionalized)이어야 하고, (b) 集合行爲여야 하고, (c) 緊張狀態에 변화를 加하는 것이어야 하고, (d) 行爲의 어떤 要素의 一般화된 再構成이라는 基盤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네가지 基準을 하나라도 缺하는 行爲는 集合行動에서 모두 除外시켰다. 그가 除外시킨 것으로

14) Turner & Killian, *op. cit.*, pp. 3-4.

15) K. Lang & G.E. Lang, “Collective Behavior,”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an & Free Press, 1968).

16) Smelser, *op. cit.*, p. 8, p. 131, p. 171, p. 266, p. 270, p. 313.

① 既存價値의 集合的인 再確認, 儀式, 祝祭 等, ② 觀察, ③ 輿論, ④ 宣傳, ⑤ 犯罪, ⑥ 個人的인 逸脫行爲 등이다.<sup>17)</sup>

Milgrim과 Toch는 “集合行動이란 自然的으로 發生하고 그 發展過程에 있어서 비교적 非組織的이고 예측키 어렵고 無計劃的이며 그 參與者들 사이에서의 相互刺戟에 달려있는 集團行動을 말한다”고 했다.<sup>18)</sup> 그들은 集團行動은 세가지 面에서 다른 社會過程과 다르다고 했다. 첫째는 集團의 크기로서 一般的으로 큰 집단이어야 하고, 둘째는 집단의 形體로서 어떤 形體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相互作用을 하지않고 共同行爲에 參與하지 않은 多數의 사람들인 無形體의 群集은 除外된다. 세째는 集合行動은 自然的, 無計劃的이고 組織性이 결여되어있다는 點에서 長老敎會, 共和黨과 같은 既成社會 集團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基準은 어떤 分명한 限界를 가진 것은 아니고 漸移的인 것이어서 小集團은 成員을 끌어들여 大集團이 되고 無形體의 群集도 어떤 共通的인 刺戟에 의해 集合體로 형성된다. 또 集團行動도 때때로 安定되고 조직화되어 既成組織體 가운데서 어떤 確고한 地位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變化는 機構化라 하는 바 이것이 社會進化의 메카니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集合行動에 대한 定義, 集合行動의 특징 및 集合行動의 對象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니와 이를 종합해 보면 집합행동을 다른 社會行動과 구별지을 수 있는 基準은 ① 集團의 規模, ② 集團의 形態, ③ 行動의 目的, ④ 相互作用의 性格, ⑤ 組織性的의 정도, ⑥ 合理性의 정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集합행동에서의 집단의 規模는 비교적 큰 편이어야 하고, 어떤 形體를 이루어야 하며, 그 行動이 어떤 問題를 해결하려는 것이어야 하고, 상호작용 즉 成員간의 커뮤니케이션이 自然的, 可變的, 一時的이며, 조직성의 정도는 약하고, 合理性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集합행동의 分類類型으로서 Smelser의 다섯가지 類型이 가장 근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이런 點들을 감안하여 筆者 나름대로 集合行動을 定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集合行動이란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形體를 갖춘 비교적 큰 비조직적인 집합체가 그 地位와 役割이 뚜렷하지 않은 成員間的 自然的, 可變的, 一時的인 상호작용과 無計劃的이고 合理性이 적은 행위로 때로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탄생시키는 집단행동이다.

## 2. 集合行動의 過程

집합행동은 비교적 포괄적인 것이다. 相異한 유형의 집합행동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같은 유형의 집합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집합행동은 각각 그 나름의 독특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에서 共通되는

17) *Ibid.*, pp. 73-78.

18) Milgram & Toch, *op. cit.*, p. 507.

一般的인 것들을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過程을 연구하는 것은 집합행동을 記述하는 것이므로 집합행동의 理解를 위해서는 과정의 연구도 필요하다.

Lang과 Lang은 不安定한 영향에 직면하여 社會組織이 받는 部分的인 變形은 5개의 基本過程을 취한다고 말하고 각 과정은 非構造化된 相互作用에서 生成된 集合的 反應을 나타내며 그 產物은 그 社會의 構造라고 提示될 수 있는 앞선 理解, 規範, 價値觀 등으로부터 豫見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이 든 다섯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非道德化(demoralization) : 補償의 均衡에 變化가 일어나 어떤 集合體의 가치관이나 行爲를 더 이상 固守할 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이나 行爲에 대한 意味있는 關係성을 喪失하는 것.

② 集合的 防禦(collective defense) : 正常的으로는 억눌리고 상투화한 感情에 근거한 集合體의 自然的인 心理的 統合.

③ 集合的 再定義(collective redefinition) : 일반적인 關心이 있는 영분모를 사건에 對한 反應에 있어서 도피적 回路를 통하여 厄命의 소스로부터 情報를 流布시키는 것.

④ 大量轉換(mass conversion) : 復興會때나 政治的 變革期 때와 같이 한 집단안에서나 多數의 個人들 사이에서의 基本的인 忠義의 大量轉換.

⑤ 結晶化(crystallization) : 보다 광범한 社會運動의 活動的인 細胞를 제공하는 결합력이 있는 核으로 자연적인 상호작용 가운데서 발전된 形式들의 갈등을 통한 응집화.<sup>19)</sup>

그러나 Lang과 Lang은 1968년판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에서는 集合的 再定義는 集合行動의 前提 비슷하게 따로 취급하고 집합행동의 과정으로서 是 收斂(convergence), 非道德化, 集合的 防禦, 極化作用(polarization), 大量轉換, 結晶化의 여섯 과정을 들고 있다. 收斂에는 物理的인 것과 行動的인 것의 두가지가 있는데 物理的 收斂이란 어떤 事件現場에 모여들거나, 같은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들거나,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같은 휴양지로 모이거나 하여 群衆을 이루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移動을 가리키고, 行動的 收斂이란 모든 참여자가 꼭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도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행하지 않고도 同一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같이 同一한 對象에 對해서 志向하는 바가 일치하거나, 같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同一한 行動을 하는 개인적인 行爲들을 가리킨다. 極化作用은 상위한 견해들을 分派的인 行爲로 固着化시키는 敵對感의 高調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호철회를 통해서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이 각 分派內에 한정되고 상황에 對한 상호의존적이지만 대립되는 定義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sup>20)</sup>

한편 집합행동을 이론화하려고 애쓴 Smelser에 의하면 집합행동 과정은 經濟學에서의 價値附加過程(value-added process)과 똑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철광석을 자동차라는 완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차체를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고, 조립하고, 판매상에 배달하고,

19) K. Lang & G.E. Lang, "Collective Dynamics: Process and Form," in A.M. Rose (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p. 344.

20) Lang & Lang, "Collective Behavior," pp. 556-564.

판매하는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때 각 단계에서 가치가 附加되어 완제품의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앞선 단계는 일정한 유형에 따라 다음 단계가 오기 전에 결합되어야 한다. 가치부가 과정이 진행될수록 최종 제품이 무엇일가에 대한 가능성의 범위를 좁혀 준다. 이러한 가치부가의 論理가 집합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합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決定因子 즉 필요조건이 있어야만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결정인자는 일정한 유형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인자들이 결정됨에 따라 문제의 집합행동 유형이 세분되고 다른 유형의 행동은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가 집합행동의 가치부가 과정의 決定因子로 든 것은 순서대로 다음의 여섯가지다.

- ① 構造的 誘引性(structural conduciveness).
- ② 構造的 緊張(structural strain).
- ③ 一般화된 信念의 生成과 流布(growth and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
- ④ 捉進要因(precipitating factors).
- ⑤ 行爲參與者의 動員(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
- ⑥ 社會的 統制의 作用 (the operation of social control).<sup>21)</sup>

Smelser의 價値附加理論은 材料를 組織化하는 데는 有用하지만 새로운 知識에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즉 臆로 假說을 생기게 하지는 못한다는 批判을 받고 있지만 그의 이론은 集合行爲의 遠近 양쪽의 原因에 注意를 기울인 것으로 광범한 결정인자를 집단행동의 체계적인 解析에 통합시킨 재치있는 試圖인 것이다.<sup>22)</sup>

### 3. 集合行動에 관한 理論<sup>23)</sup>

#### 1) Gustave Le Bon의 理論

집합행동연구의 鼻祖는 Le Bon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1895년에 Revue Scientifique에 “群衆心理學”이란 論文을 발표하였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人間이란 것은 群衆속에서 급격한 變化를 겪는다는 것이다. 일단 “군중의 心的 統一의 法則”에 사로 잡히게 되면 原始的이고 非合理的인 要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군중 속에 섞이게 되면 사람은 自制力을 잃고 禽獸와 같이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人間은 혼자있을 때 행해지면 깜짝놀랄 그런 행위를 군중속에서는 한다. 인간이 참된 심리학적 군중속에 入될 때 제일 큰 變形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군중의 속성은 匿名性(anonymity), 傳染性(contagion), 被暗示性(suggestibility)이라는 세가지 주요 메카니즘에 의하여 生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Le Bon의 主張은 逸話的이고 非體系的인 증거에 근거를 둔 것이고, 군중

21) Smelser, *op. cit.*, p. 15.

22) Milgram & Toch, *op. cit.*, pp. 561-562.

23) 集合行動에 관한 理論에 대해서는 Milgram과 Toch의 上揭論文의 p. 542부터 p. 555까지를 참조하였음.

의 非合理性을 정상적이고 孤立된 個人과 對照시키지만, 홀로 있는 個人에게도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그런 대조는 부적절한 것이며, 군중의 類型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例만을 선택했다는 등등의 批判을 받고 있다.

## 2) 精神分析學的 見解

Freud는 1922년 군중의 비합리성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Le Bon의 강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집단행동의 영역에 확대시킴으로써 군중행동에서 無意識이라는 源泉을 밝히려고 했다. Freud에 의하면 군중의 성원간의 統一性을 형성하는 것은 리비도의 유대(libidinal ties)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원들을 결합시키고 “集團心性”(the group mind)의 本質을 이룬다. 리비도의 결합이 집단의 成員들과 그 指導者 사이에 발전된다. 지도자의 영향아래서 군중의 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超自我(superego)를 포기하고 그것을 지도자에게 맡긴다. 지도자는 최면자가 피최면자에게 갖은 그런 관계를 군중의 성원에게 갖게 된다. 지도자에 대한 성원의 관계가 군중을 결속하는 중요 힘이지만 또 하나 각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이 자기와 같이 지도자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성원들이 서로 일체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집합행동에서는 꼭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無法的인 폭도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Freud의 이론에 취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挫折-攻擊 假設(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이 좌절-공격 가설은 정신분석학적 思惟의 확장으로 1930년대 Yale大學의 一團의 心理學者들에 의하여 형성되어 집단행동의 분석에 적용된 것이다.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공격적인 행동의 발생은 항상 좌절의 존재를 前提로 하며, 반대로 좌절의 존재는 항상 어떤 형태의 공격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제는 두가지 예측으로 정밀화되는데 하나는 相異한 환경하에서 기대되는 공격의 상대적인 量에 관한 예측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의 대상이 될 사람들에 관한 예측이다. 공격의 양과 관계되는 하나의 예측은 파괴적인 反作用의 격분이 실망의 모욕 즉 “좌절적인 반응에 대한 간섭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공격의 對象과 관련된 예측에 의하면 희생자는 ① 좌절의 근원, ② 他人, ③ 환상적 客體, ④ 공격자 자신의 順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 4) 傳染理論(contagion theory)

傳染이란 한 군중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여자에게 감정이나 행동이 전파되는 것이다. McDougall(1920)은 한사람의 얼굴 및 신체에 의한 감정의 표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을 야기한다고 말하면서 “감정의 同情的 誘導 理論”에 의한 감정의 전염을 설명했다. Floyd Allport(1924)는 “循環反應”(circular reaction)이라는 생각을 제안하여 전염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켰다. Blumer(1946)는 집합 행동을 “한 개인의 反應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再生産하고, 다른 개인에게 反映됨에 있어서 자극을 강화하는 상호 자극의 형태”로 定義함으로써 순환적인 반응을 집합행동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의 지위로 끌어 올렸다. 전염은 輪動(milling)이라는 과정에 의해 촉진 된다. 輪動에 있어서, 양이나 소들이 그 때중에서 그러듯, 개인들은 목적없이 서로의 주위를 맴돈다. 輪動은 균중을 同質化하고 흥분의 정도를 높인다. Blumer에 의하면 사회적 전염의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처음에는 초연하고 무관심한 구경꾼들인 많은 개인들을 끌어들이고 전염시킨다”는 점이다.

전염이론가들은 몇가지 문제점에 부닥치게 된다. 첫째 전염의 한계가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 때로는 어떤 특수한 감정이나 행동이 전염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성공적인 전염의 조건들을 명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이론의 뚜렷한 결점이다. 또한 전염성이 작용하는 사회적 공간의 경계를 명시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다. 또한 전염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유도된 행동의 내용을 指示하지도 않고, 균중을 통해 퍼지는 변화의 다양성도 지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염이라는 것은 이론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론적인 메카니즘의 맥락속에서 機能할지도 모르는 특수한 메카니즘이다.

#### 5)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

傳染理論이 群衆에 의해 감염된 正常的인 품위 있는 개인의 變形을 강조하는 반면에, 收斂理論은 共通의 性質을 共有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된 사람들의 고도로 非代表的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균중이라고 주장한다. 共通의 性質은 균중의 形成에 앞선다. 수렴 이론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의 메카니즘 보다는 균중의 구성이 중심요소다. 수렴 이론을 취하면 성원들의 類似性은 균중 형성 과정 자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균중안에서 동질성을 유발시키는 메카니즘을 찾을 필요는 없게 된다. 수렴 이론은 모든 反社會的인 집합행동은 어중이떠중이들로부터 나오고 품격 있는 준법적인 시민들은 無法的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暗示하기 때문에, 전염 이론보다 보다 나은 이론이다. 수렴 이론의 한가지 長點은 그 메카니즘이 폭동과 폭행(lynch)으로부터 일탈적인 社會運動까지 광범한 집합행동을 包括할수 있는 點이다.

수렴이론의 한가지 難點은 균중행위의 變化方向을 설명하는 데 있다. 유사한 행동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各者가 균중 속에서 그의 존재가 행위 성향을 깨닫게 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균중의 目的이 변할때에도 그것의 계속적인 同質性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수렴 이론은 유사한 心性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함께 모이게 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傳染對收斂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즉 反社會的인 행동을 展開하는 균중은 상호 자극에 의하여 폭력의 상태로 이른 사람들의 평범한 집단으로 이루어졌는가,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갖지 않은 어떤 일탈적인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특별한 집합체로 이루어졌는가 이다. 물론 전염과 수렴은 상호 배타적인 설명은 아니다. 둘다 作用할 수 있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 6) 規範出現理論(emergent norm theory)

Turner와 Killian(1957)에 의하여 提案된 이 이론은 전염이론가 및 수렴이론가에 의해 假定되는 군중행위의 동질성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실상 소위 공격적인 군중의 대부분의 성원은 적대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관심을 가진 호기심 많은 방관자에 불과하다. 비교적 극소수의 활동적인 개인들의 현저한 행위가 전체 군중에 귀속된다. 따라서 문제는 동질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동질성이라는 착각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解答은 이렇다. 적절한 행위에의 合意가 군중속에서 형성되고, 관객과 마찬가지로 군중의 성원도, 집합체의 특성화에 있어서, 군중성원의 실제적인 행위를 參照하기 보다는 그러한 規範을 參照한다는 것이다. 군중 規範의 수립에 있어서 소수의 현저하고 활동적인 성원들의 행위가 행위의 지배적인 經路로 지각된다. 이것이 그렇게 지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과 일치하게 행동하도록 제한하고, 반대적인 행위를 규제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특수한 행동 노선을 밟도록 탈바꿈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 규범 이론은 군중속에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바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지, 그가 집단 감정에 의해 기계적으로 감염되었기 때문도 아니며, 또는 그가 모방하는 맹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한다.

규범이론은 집합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규범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반 말해주는 것이 없으며, 특히 집합행동과 흔히 관련되는 폭력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규범이론은 감정과 행동의 동질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적절한 행동 기준에 대한 군중성원의 공통된 신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동질성을 제기하고 있다.

### Ⅲ. 集合行動과 커뮤니케이션

序言에서도 言及했듯이 人間의 社會行動은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不可能하다. 특히 집합행동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역할은 주요 관심의 대상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집합행동의 時期, 內容, 範位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몇 이론가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집합행동의 통합적 부분으로 취급한다. 여기서는 집합행동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언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々が 집합행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로 하자.

#### 1. 集合行動과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집합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相互作用하면서 행하는 言語的 또는 非言語的 對面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對面 相互作用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目的으로서 Laver와 Hutcheson은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기본적인 心理學的 중요성이 있는 人間과의 社會的 統合, 둘째 특별한 사회적 同一體와 태도에 대한 指標的 主張, 셋째 和 合된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특수한 목표 달성이다.<sup>24)</sup> 이러한 세가지 목적은 바로 對面時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으로 달성될 수 있다. 집단행동에 있어서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동질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통일된 행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 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단행동 참여자 사이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집합행동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感情 또는 태도를 나타내는 表現的 또는 喚情的 機能,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들을 指示하는 指示的 機能, 커뮤니케이션에 관계한 사람간의 사회적 紐帶를 강화시켜 주는 親和的 機能이 중요하다. 집합행동에 있어서 감정과 행동의 傳染은 참여자의 상호작용시에 일어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적, 지령적, 친화적 기능의 복합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합행동으로서 學生示威運動을 예로 들어 보자.

學生示威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몇몇 學生들이 한 곳에 모여 주위의 여러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적당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구경하는 학생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 지도자급 학생들은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문제의 대상에 대한 聲討를 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에게 보다 큰 관심과 일체감을 형성시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學生들이 보다 통일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시위동안에 일어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즉 구호합창, 노래, 성토 및 어떤 제스처 등은 그 情報的 機能보다는 그것이 시위참여자들에게 주는 환경적, 지령적, 친화적 기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집합행동에 있어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기능은 특히 군중행동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미국의 한 경찰 교범에는 잠재적으로 폭동적인 군중 통제에 한 방법이 군중을 소단위로 분산시켜 輪動過程(milling process) 동안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다.<sup>25)</sup>

집합행동의 참여자들이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는 과정으로서 특히 輪動이라는 것이 중요시된다. 輪動에 대해서는 전염 이론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 있지만 여기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sup>26)</sup>

輪動(milling)이란 말은 소떼의 不斷한 순환적 동요를 말하는 것인데 人間의 輪動도 짐승

24) J. Laver & S. Hutcheson (eds.), *Communication in Face to Face Interaction*(Baltimore:Penguin Books, 1972), p. 317.

25)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지적되어 있다. 군중이 어떤 통일체를 이루기 전에 촉발적인 사건에 관계된 개인들을 격리시키는 것,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군중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 군중의 注意를 中心點에서 다른 지점에 분산시키는 것, 군중을 그림자처럼 군중이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을 막는 것. Turner & Killian, *op. cit.*, p.144.

26) Milling에 관해서는 Turner와 Killian의 上揭書 pp.58-62를 참조 하였음.

의 그것에 비유된다. 기초적인 집합행동의 초기단계에는 하등동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흔히 다량의 산발적이고 부단한 물리적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운동이라는 것은 輪動의 우연적 성질이 본質인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이란 고통속에 잠긴 고통한 개인이 그 행위에 제한을 받으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再構造化하는 행위에 참여하고 불확실성의 원인 이외에는 아무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안절부절하여 손톱을 깨물고, 흡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산발적이며 신경질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개인들의 意味 追求는 약간 다른 方向을 취한다. 개인은 그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단서를 구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 상황의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 즉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개인에게 그 상황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인들이 集合體의 일부로서 再構造化 行爲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輪動한다고 말할 수 있다. 輪動이란 것은,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것이다. 불안한 개인의 무모하고 들뜬 동작은 집합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억눌린 신경질적 에너지를 배출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극이 되기도 한다. 동작 자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집합체 성원들 상호간의 주목을 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輪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비교적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裁可된 意味의 追求로 定義된다. 그러나 단순히 상황이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輪動이 시작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 상황은 重要性이 있어서 집합체의 성원들이 행동하도록 또는 적어도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動機化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아래서 輪動은 共通의인 定義의 발달에 기여하여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고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輪動은 여러가지 상이한 행동을 이루면서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는 최소한의 物理的, 言語的 행위를 포함한다. 종교 모임, 수업시간, 또는 극장안에서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는 모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규범에 의하여 動作과 對話가 금지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알려고 두리번거림으로써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근거림으로써 마음을 산란케 하는 지극에 반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은 보다 큰 활동 범위를 허용하기도 한다. 움직일 수 있는 보다 많은 空間이 있고 탐색적인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제약이 보다 적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이 아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매우 활발한 輪動이 시작된다. 이러한 類의 輪動은 어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를 열렬히 그러나 조급하게 기다리는 군중에게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유리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왔다 갔다 하며 지금까지 무엇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려고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輪動이 一次的으로 言語的 過程이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서로 묻고 몇마디 정보와 추측과 이론으로 질문에 답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람들은 움직이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전낸다. 사람들이 이리 저

리로 물리게 됨에 따라 작은 떼가 여기 저기에 형성된다. 이러한 동안 내내, 정보, 추측 및 예견들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된다.

집합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輪動이라는 相互作用 즉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개인들이 서로 感性化하고, 共通의인 情調를 발전시키고, 共通의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사회적 결속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수한 목표달성을 위한 和合된 집단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 2. 集合行動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많은 커뮤니케이션 學者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득이나 태도 변용 즉 영향은 주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 의하고, 情報의 흐름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對面하고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 지령적, 친화적 힘이 강하다. 매스 커뮤니케이션도 이런 기능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보적 기능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집합행동에 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나 영향이 무엇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선 Schramm을 引用해보자.

분명하게 매스 미디어와는 거의 또는 전연 관계가 없는 수 많은 요인들이 民權運動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법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의 모든 변화가 민권운동의 생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더라면 소수집단의 人權鬭爭이 그렇게 급속도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다. 비록 다양한 조건들이 南部에서의 초기 비폭운동과 시위를 낳게 했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확실히 전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혁을 위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 행동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데 기여했다. 이 점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영향이다.<sup>27)</sup>

情報라는 것은 集合體의 內部에서 흐르기도 하지만 집합행동에 관한 情報가 집합체의 경계를 넘어 유포되어 보다 많은 집합행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나 流言에 의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 4·19革命을 可能하게 한 원인 중의 하나는 3·15 不正選舉에 대한 마산 學生들의 집단 항의 사태를 비롯 곳곳의 시위 사태를 매스 미디어가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항의 시위를 야기시켰던 데에 있다. 1965년 8월 미국 로스 안젤레스의 한 흑인 빈민가 Watts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 때에 사람들은 트랜시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며 뉴우스 보도를 듣고 뉴우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현장에 모여들었다 한다. 美國에서의 많은 조사들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의 보도 특히 텔레비전의 보도가 폭동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했고, 보다 많은 소

27) W. Schramm, "Social Consequences of Mass Communication," in Schramm(ed.),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Chicago: Univ. of Ill. Press, 1971), p. 520.

요사태를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다. 이와 같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관들은 어떤 집합행동에 재빨리 반응함으로써 때로는 집합행동의 임무와 의미를 강화하고 영구화 하며 그것들을 집합행동의 현장을 넘어서까지 확대시키고 그것들을 모순되게 하고 수정하게 한다. 더구나 매스 미디어의 내용이 中立的이거나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의식적으로 내용을 조작하고 의곡시켜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매스 미디어는 집합행동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일시에 많은 분산된 수용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촉발된 집합행동의 규모는 비교적 광역적인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 대한 虛像을 전함으로써 대규모의 집합행동을 야기시킨 가장 극적인 경우는 1938년 Orson Welles의 「火星으로부터의 來襲」이라는 방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방송을 청취한 수 많은 미국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떨었고 어떤 사람들은 달아나기 까지 했던 것이다.<sup>28)</sup> 이런 類의 집합행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집합 행동은 분명히 군중행동과 같이 성원이 물리적으로 근접한 그런 집합체는 아니다. 그러나 성원이 분산된 집합체의 경우에도 “성원들이 그런 성원의 일인이라는 소속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이 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비록 개인들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집합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아이로니칼하게도 그 내용 自體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특정한 이익단체나 집단에 불리한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몇 년 전 동아일보의 기사에 불만을 품은 모 改新敎의 신도들이 동아일보사에 난입하여 폭력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영화의 외설성에 항의하는 운동이 카톨릭교회에 의해 주도되어 결국 영화계가 지속하도록 했다 한다.<sup>30)</sup>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군중행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군중행동의 지역적, 시간적 범위를 확대시키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기도 하고, 분산된 성원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의 광역적인 집합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하며, 자체의 내용에 항의하는 집합행동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 3. 集合行動과 流言

우리는 흔히 流言이라는 것은 口傳에 의한 것이므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一種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流言이라는 것은 基

28) H. Cantril, "The Invasion from Mars," in Schramm(ed.), *ibid.*, pp. 525-553.

29) Turner & Killian, *op. cit.*, p. 165.

30) *Ibid.*, p. 187.

本的으로는 口傳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유언들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유포되기도 하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內容自體가 流言의인 수가 많다. 그리고 流言은 집합행동에 필히 수반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 커뮤니케이션과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집합행동과 流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Shibutani는 “유언은 모호한 상황에 함께 처한 사람들이 그들의 知的인 資源을 동원하여 意味 있는 해석을 구축하려고 하는 반복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며 유언은 집합적인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31)</sup> Turner와 Killian은 流言이란 輪動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流言을 주고 받는 것은 그 본질적인 意思疏通의인 點(communicative aspect)에 있어서 輪動이다. 즉 認知的 明료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합적으로 허용된 사건 해석의 형성인 것이다. 流言은 社會傳染의 메카니즘이며 이것은 가장 빈번히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유언의 연구로부터 사회전염에 작용하는 원칙들을 알 수 있다.<sup>32)</sup>

Lang과 Lang도 새로운 사회적 定義의 긴급출현은 집합행동의 모든 현상의 일부라고 말하고 集合再定義가 결과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언 과정이 가장 기초적이었다. 유언 과정이란 社會指向이 필요하나, ① 사람들이 의지하려는 公式的인(構造化된) 情報回路가 두절되거나 不信되고, ② 어떤 一個人도 그 상황을 정의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③ 권위있는 消息源에 의해 어떤 확인이 없을 때, 定義에 도달하려는 비조직적, 一時的 노력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流言은 보다 참된 정보가 부족하나 어떤 행동이 요구될 때는 언제나 어떤 상황을 定義하는데 봉사한다는 것이다. 사회 지향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일시적 回路에 의해 익명으로 남아있게 되는 정보원으로부터 유언 과정에 의해 유포된다.<sup>33)</sup> 이런 식으로 유언은 어떤 집합행동에 참여한 성원들이 일치하게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定義를 提供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언은 어떤 집단행동이 필요한 不透明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명료하게 定義함으로써 그 집합체가 즉시 일사불란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그 집합체의 성원들을 결속시켜주는 것이다. Smelser는 구조적 긴장을 기존의 행위의 틀안에서 다룰 수 없을 때는 流言이 발생하며, 유언은 이미 일어난 것을 설명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장래 일어날 것을 예언함으로써 모호한 상황을 재구성 한다고 지적했다.<sup>34)</sup> 결국 어떤 집합행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집단 행동과 관련된 유언이 있기 마련이다. Allport와 Postman은 유언이 폭동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

31) T. Shibutani, *Improvised News: A Sociological Study of Rumor* (New York: Bobbs-Merrill, 1966), p.17.

32) Turner & Killian, *op. cit.*, p.60.

33) Lang & Lang, "Collective Dynamics" in Rose(ed.) *op. cit.*, p.352.

34) Smelser, *op. cit.*, p.82.

나 유언은 항시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수반하고 강화하는 유언이 없이는 어떠한 폭동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언과 폭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단계가 혼허 있음을 지적하였다.

1. 폭동이 일어나기 전 한 동안 불안에 대한 속삭임이 있게 된다. 이러한 속삭임은 각 집단에 의해 그 적대자들의 탓으로 돌려진 차별, 모욕 또는 非行을 특징짓는 얘기의 형태를 취한다. 이 단계에서 유포되는 유언은 적대적이고 비난조인 얘기들의 일상적인 흐름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흑인이나 유색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관한 또는 고용주의 욕심이나 경찰의 야만성에 관한 일상적인 고집과 같다. 그러나 정상적인 流布가 초과되거나 얘기의 잔학성이 보다 예리해지면, 우리는 폭동 직전의 상태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자체로서 이런 얘기들이 폭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증가하는 사회적 긴장의 척도로서 작용하며, 사회적 선풍이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폭풍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유언이 특별히 위협적인 형태를 띠며 위협이 나타난다. “오늘 밤 강가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경기뒤에 야구장에 가서 구경거리 보는 것 잊지말아라.” “그들이 오늘밤 그 겁둥이를 붙잡아 죽치려고 한다.” 때로 이런 얘기들은 막대한 폭력을 적진에 돌린다: “그 불한당들이 한달 동안이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1943년 여름 미국의 Detroit소요 사건 동안에 무장한 흑인들을 실은 차가 Chicago에서 Detroit로 향했다는 流言이 나돌았었다. 이 불길한 얘기가 무책임하게 라디오로 방송되어 만연한 공포를 증가 시켰다....

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폭약에 점화를 시키는 것은 선동적인 유언 그 자체다. 1943년 8월의 美國의 커다란 Harlem 폭동도 흑인 병사와 백인 경찰이 Harlem의 한 호텔 로비에서 싸운 사건에 대한 유언적 해석에 즉시 뒤따라 일어났다. 실제로는 다투는 중에 경찰과 병사가 부상을 입는 정도였지만 유언은 흑인 병사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다.... Detroit의 소요사건은 Bell Isle 해변에서의 사건에 관한 심히 의곡된 얘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축적제적인 사건은 흑인과 백인의 주먹다툼이었다. 이 사건은 해변으로부터 도시에 이르는 동안 과장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언전달자의 同化的 선입견에 따라 어떤 것은 백인의 귀에, 어떤 것은 흑인의 귀에 맞추어졌다. 어떤 얘기는 백인 선원에 의해 흑인 어린이가 다리에서 내던져졌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얘기는 백인 어린이가 흑인에 의해 다리에서 내던져졌다는 것이다. 백인 여자가 다리위에서 흑인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백인선원이 흑인소녀를 욕보였다고도 한다....

4. 폭동의 열기 속에서 유언은 보다 빨리 떠돌지만 이러한 광적인 동안에는 그것의 성격이 예리한 광신을 반영한다. 때로는 환상적이기도 하다. 마치 진행중인 폭력을 정당화하고 복수의 과정을 가속화시키려고나 하듯 고문, 강간, 살인 등의 얘기가 광적인 상태로 전해진다.... 유언은 긴장과 흥분의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순전히 병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언이 제3 및 제4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경찰이나 지각있는 지역사회 지도자가 그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 단계에서는 폭력 그 자체를 저지해야 하는데 거칠은 얘기들은 단순히 언어적 필수 수반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第1 및 第2 단계에서는 유언이 법집행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믿음만한 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은 지체없이 동요된 사람들의 통제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흥분과 적대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sup>35)</sup>

35) G.W. Allport & L. Postman, *The Psychology of Rum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47), pp. 193-197.



流言은 개인이 상황에 대한 믿음만한 개념을 집단에 준거하도록 해 준다. 그래서 일단 그가 다른 사람들과 그의 개념을 함께한다고 확신하게 되면 집합체의 성원은 보다 기꺼이 행동하려 한다. 이렇게 보면 유언이라는 것은 개별 성원들의 행동을 화합시킬 규범이 나타나는 집합적인 결정 과정으로 간주된다. 집합적인 定義가 행동에 필요하고 이전의 개념이 定義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조직적인 구조가 협동하기에 부적합할 때 유언이 지속된다. 그래서 유언은 흔히 공포, 열광, 폭동과 같은 단기적인 집단행동에 선행하며, 또한 혁명운동과 종교적인 분리와 같은 장기적인 소요에도 어떤 역할을 행한다.<sup>36)</sup>

집합행동에 참여한 집단은 두가지 길중의 하나를 택한다. 즉 한가지는 外的으로, 집단의 밖에 있는 어떤 對象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고, 다른 하나는 內的으로, 집단 그 자체를 특성화하는 주관적인 상태의 產出, 高揚 또는 확인에 대해서다. 그리고 流言과 流言을 유발하는 상황에는 상응하는 유형이 있다. 유언이 발생하는 상황의 유형은 죄의식, 적대감 또는 投射와 같은 유언의 유포와 유언의 의곡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만큼이나 유언의 성질이나 유언 변화의 성질을 설명한다.<sup>37)</sup> 공포의 행동에서는 도깨비 유언(bogey rumor) 즉 불안의 유언이, 열광의 행동에서는 공상유언(pipe-dream rumor) 즉 願望을 실현하는 유언이, 그리고 敵對인 폭동에서는 썩기박는 유언(wedge-driving rumor) 즉 적대적인 유언이 발생한다.

#### IV. 結 語

집합행동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요체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집단의 존재는 커뮤니케이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집단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의 流通이 방해받으면 成員들의 行動에 있어 協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集團의 目標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個別 成員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집합행동에 참여한 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주어진 상황을 理解하고, 그 상황에서 타인들의 反應을 알아내고, 자신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호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답답함을 극복하고 타인들과 어떤 合意에 도달하고 和合된 行動으로 어떤 目標를 달성한다. 사회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작용이 필수적이지만 집합행동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은 多大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집합체의 成員間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집합행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집합체조차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집합행동은 異質的인 成員들 사이에서는 成立되지 않는다. 개인들은 어떤 一般化된 信念 밑에서 앞으로 사태가 보다 改善되리라는 어떤 共通의 이미지를 갖고 그것들을 서로 疏通함으로써 어떤 同質性을 이룬다.

36) Smelser, *op. cit.*, p. 80.

37) Turner & Killian, *op. cit.*, p. 79.

이 同質性을 이루게 하는 것이 成員間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正常的인 커뮤니케이션 過程이 와해되더라도 集合體의 個人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基盤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集合體와 集合行動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과의 커뮤니케이션은 別個問題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不適切이나 不足이 오히려 集合行動을 야기시킨다. 가령 파업은 勞使間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파업자들 사이에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파업행위에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集合行動에 참여한 성원들은 流言이나 또는 流言 以外の 다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狀況에 관한 集合的인 定義에 도달하고 성원간의 同質性을 이룩하여 問題解決을 위한 成員들의 和合된 行동을 可能하게 한다. 특히 流言은 이미 일어난 事件을 설명하고, 進行中인 事件을 報道하고, 發生할 事件을 豫言함으로써 모호한 狀況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成員 사이의 一般的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성원들이 보다 더 同質化되고 유대를 強化해 간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集合行動의 範位를 時間的, 空間的으로 확대시키고, 그 效果를 增加시켜주며, 때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內容 自體가 集合行動을 유발하기도 한다.